



2022년 1월 9일(제1070호) 주님 시레 복음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예수님과 함께”

오늘은 전례력 상의 성탄 시기가 끝나는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연중 시기가 시작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기념하는 성탄 시기를 지나, 예수님의 공생활을 따라 함께 연중 시기를 보내며, 세상에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 속에서 구원을 위한 가르침을 배우고 마음속 깊이 새길 것입니다.

오늘의 독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3년간의 공생활 때의 말씀과 여러 행적들을 요약 정리해주는 듯합니다. 곧 예수님께서서는 유일한 주님이시며, 억눌리고 간혀있는 이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또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둠과 죄로 인해 눈먼 우리들을 눈뜨게 하시며, 하느님의 성령을 전해 주십니다. 화답송에서 노래했듯이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런 주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심을 우리는 기뻐하였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 선포와 의로움을 드러내 주는 많은 행적들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공생활의 시작에 바로 오늘 복음말씀에서 들은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사실 예수님께서서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세례 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사랑을 전해줍니다. 우리와 단 하나의 차이도 없는 똑같은 인간이 되셨음을 보여주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일치할 이루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이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삶의 현장을 함께 살아갈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또한 함께 맞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더없이 겸손한 모습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우리는 성령의 내려오심을 보았고, 하느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인 예수님.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지닌 주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을 것입니다.

성탄 시기의 끝, 연중 시기의 시작에 앞서 우리의 삶과 믿음이 지향해야 할 곳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겸손한 자세로 하느님의 정의와 사랑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 우리 또한 하느님의 사랑하는 마음에 드는 진정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과 공간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공생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오늘 미사 중에 청합니다.



이화신(시도요한) 신부
해병대요람(해병대교포단) 성당 주임

제 1 독서 회답송 제 2 독서 복음 보호송

- 이사 42,1-4.6-7
-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 사도 10,34-38
-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 루카 3,15-16.21-22
- 보라,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복음 영성제송

성 김대건 안드레이 신부의 시한

열네 번째 시한

서울에서는 신자들로부터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피곤한 일들로 인하여 여러 차례 병을 앓았습니다.

지금은 11명의 신자들과 함께 배로 상해에 와서, 지극히 공경하올 주교님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일로 몹시 분주하여 많은 것을 보고드리지 못합니다.

지극히 존엄하올 주교님께 조선인 김 안드레아가 올립니다.

열다섯 번째 시한

(이 서한은 김대건 부제가 6월 4일 상해에 도착한 뒤에 예수회의 고틀랑 신부에게 보낸 서한이다. 그러나 현재 이 서한은 유실되었고, 서한을 보냈다는 사실만이 ‘고틀랑 신부의 1845년 7월 8일자 서한’에 나타나고 있다.)

열여섯 번째 시한

리브와 신부님께

(상해에서), 1845년 7월 23일

지극히 공경하올 신부님,

저는 모든 준비를 끝낸 후 11명의 교우들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그들 중에서 4명만이 사공이었고 나머지는 바다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것을 비밀리에 또 급히 추진하다 보니 유능한 사공을 구할 수 없었고 그 밖에 아주 필요한 물건들도 놓고 왔습니다.

이리하여 음력 3월 24일(양력 1845년 4월 30일) 돛을 펴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교우들은 바다를 보고 아주 놀라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서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어디로 가느냐고 감히 묻지를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제가 하는 일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을 금지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성 김대건 안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복 음 묵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평화가 여기에

평화가 너희와 함께!

우리들 안에

가득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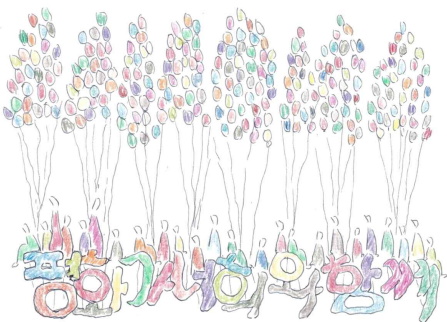
그 평화가 여기에

기원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평화가 우리와 함께!

여기 이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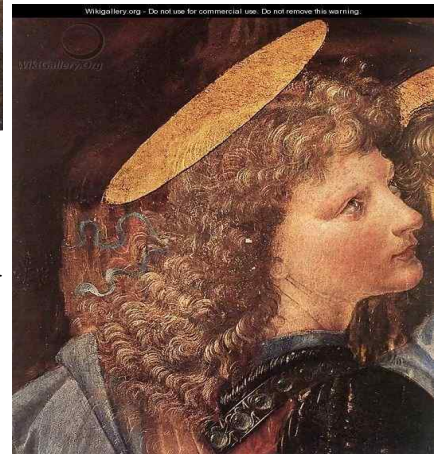
상화이야기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베로키오는 본인의 작업보다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승이었다는 점 때문에 유명해지게 되었고, 이 작품도 다빈치가 천사 중의 하나를 그려 넣었다는 이유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발목까지 오는 물결이나, 바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들, 그리고 인물들의 얼굴과 자세에 알 수 없는 위엄과 힘이 느껴지는 훌륭한 작품이다.



베로키오, 1472년 ~ 1475년 작
나무 위 유화, 177x151cm / 피렌체, 우피지

맨 왼쪽에 있는 천사의 얼굴을 다빈치가 완성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선이 굵고, 굳은 표정의 타 인물들과 달리 선이 부드럽고, 다빈치 특유의 모호한 미소가 돋보인다.

김은혜(엘리사벳)

세부도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주님 세례 축일: 승진 농민기 신부

◆ 교구장 동정

- 성가브리엘(정보사) 성당 사목방문
 때: 1월 9일(주일)
- 회의
 때: 1월 11일(화)
 국장회의 11:00, 사제평의회 14:00, 참사회의 16:00

◆ '신부(神父)의 책장(시즌3)' 인니

- 업로드 플랫폼: 네이버 오디오클럽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 좋은 서적을 소개하고 나누며 들려드리는 콘텐츠입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립니다.

“상제상시로 기뻐하는 삶” - “니를 먹는 사람도 니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요한 6,57)